

Con-act 교육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
2020. 여름



EDUCATION NEWSLETTER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제34대 학생회 Con-act 그대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잇다
#교육이슈 #임용정보 #교사인터뷰 #칼럼 #사범대학 교육소식 #For 예비교사

교육

첫번째 이야기
2020. 여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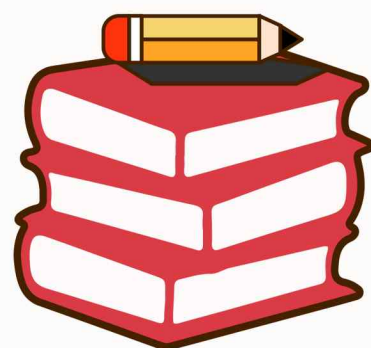
EDUCATION NEWSLETTER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제34대 학생회 Con-act 그대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잇다
#교육이슈 #임용정보 #교사인터뷰 #칼럼 #사범대학 교육소식 #For 예비교사

Con-act
그대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잇다

CONTENTS

학생회장단 인사말	01
교육이야기 발간소감	02
교육이슈	06
임용정보	14
교사 인터뷰	18
칼럼	22
사범대학 교육소식	30
FOR 예비교사	36



학생회장단 인사말

안녕하세요, 햇불인 여러분.

제34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임원빈, 부학생회장 장수빈입니다.

새학기, 새학년에 대한 설렘도 잠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혼란 속에서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햇불인 여러분과 ‘Con-act’가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학우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푸른 생명이 활기찬 여름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발간되는 교육이야기는 햇불인 여러분이 교육에 대한 이슈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Con-act’의 공약 사업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현직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런 상황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지금이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께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이야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현장에 관한 소식들과 함께 사범대학의 소식과 교원임용고시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교육이야기를 통해 학우 여러분이 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관련 이슈나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이야기를 발간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주신 우리 교육지원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교육이야기를 위해 많은 정보를 나눠주신 여러 선생님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게 발간하는 우리의 교육이야기가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제34대 사범대학 학생회 Con-act

강제현

생물교육과 19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제34대 학생회의 교육지원국장 강제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책은 저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국원들 또한 처음 진행해보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제작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저희는 해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미적 감각 50년치 여기다 다 쓴 것 같네요.

나머지 50년은 두번째 이야기에서 확인해보시길~

우리 국원들 사랑하고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 사랑해요 ♥

‘교육이야기’ 제작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고, 살면서 책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시작할 때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국원들의 도움과 국장님의 지도로 잘 끝낸 것 같아
부듯하다. 학우분들께서 읽어만 주신다면 더욱 바랄 게 없다. 감사한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교지국 사람들이다. 다들 고생했고 앞으로도 같이 힘내요.

이걸 읽으시는 학우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박예리

생물교육과 20

정현아

윤리교육과 19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중 1일 뿐인 제가 이렇게 발간사를 쓰는 것 만으로도
영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모자란 글솜씨 잔뜩 뽐내며 머리 맞대어 발간하였으니
부디 유용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을 담아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번 학생회에서 교육이야기를 제작 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임무이자 기회였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속에서
국원들과 함께 교육이야기를 제작해 나간다는 것이 마냥 쉬운것만은 아니었다.
이 교육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산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처음이기에 서툴지만 처음이라 다채롭고 정말 유익한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교육이야기이다. 이 교육이야기를 접하는
그 누군가들 모두 이 교육이야기 속의 내용과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다.

이유선

영어교육과 20

최지민

지리교육과 19

우와 교육이야기 발간이라니! 이걸 당연히 최소 3번 정독해야하는거 아닐까요?^^
1학기 때 코로나때문에 교육이야기가 교육지원국원으로서의 첫 업무가 됐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당 ㅎㅎ
꼭 세번씩 정독하시고(만나면 내용 물어볼거임) 다음 학기에
두번째 교육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국원 일반사회교육과 김서영입니다 :-)

2020년 Con-act에서 교육이야기를 처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 어떤 정보, 소식을 전하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에 발간될 교육이야기 두번째 이야기와 Con-act가

앞으로 보여드릴 여러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김서영

일반사회교육과 18

김병준

독어교육과 20

교육지원국의 주 사업이었던 교육이야기의 발간을 마침내 끝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회의와 피드백을 거듭한 끝에 교육이야기라는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책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할지라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담겨있다. 교육이야기를 읽는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칼럼

작성을 흔쾌히 응해주신 원윤희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재차 전해드리고 싶다.

안녕하공 ~
교육이야기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공
얼른 읽어보자공!!



교육이슈

1. 자유학기제
2. 상피제도
3. 무상교육 확대
4.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5. 코로나19:교육에 미친 영향
6. 대학 등록금 환불
7. 선택적 패스제도
8. 사립유치원 챗봇

issue 1 자유학기제 확대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교육부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600개교, 2015년 150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보다 많은 학교가 제도 도입을 희망하면서 2014년 811개교, 2015년 2551개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였다.

또 2017년에는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1개 학기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에 추가로 준비학기, 연계학기, 탐색학기 등 교육청 여건에 맞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등 기존의 자유학기를 확대 운영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7년 11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전국 중학교(3210개교)의 45.8%인 1470개교가 자유학년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교실, 토론·토의, 실습 등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정답 찾기 위주의 일제식 총괄식 지필평가 대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같은 학생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된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부의 늪에서 아이들을 꺼내고 학생이 진정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쌓게 됨으로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 창의력도 기를 수 있다.

이는 닫힌 곳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길러나가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음으로 인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성적인 아이들조차도 점차 다양한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에도 부작용은 있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잘 구축이 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부족한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1학년때는 학업에 큰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끔 하여 '노는 학기'로 불리는 등의 학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체험 기반들이 확실히 구축이 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자유학기제가 구성이 된다면 보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by 이유선

issue 2 상피제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여기서 상피제란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즉 교육 현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작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강화 되었다. 숙명여고 사건은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숙명여고에서 당시 2학년 문이과 반에 재학중이던 쌍둥이들이 갑자기 엄청난 성적 상승들을 보여주었던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1년 전 전교 121등과 59등에 불과했던 그들이 전교 1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쌍둥이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의혹이 쏠렸다. 이 의혹의 근거는 아버지인 교무부장에 의해 쌍둥이가 시험지 유출을 전달 받고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경찰 조사 결과 교무부장 현씨의 야근 행적과 집 압수수색 근거물로 인해 현씨는 구속 기소 됨과 동시에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1005명이며 부모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는 1050명이라고 한다. 2360개 고교 가운데 560개 교(23.7%)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미 경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다.

결국 부산시 교육청의 상피제 도입과 나머지 교육청의 상피제 강화는 교사가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신,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다.

by 이유선

issue 3 무상교육 확대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의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나 교과서 구매비, 운영 지원비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무상으로 운영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이 되면 고교 입학금부터 무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19년 기준	
	1학년부터 시행 시	3학년부터 시행 시
고3(2001년생)	X	49만 명
고2(2002년생)	X	44만 명
고1(2003년생)	44만 명	44만 명
중3(2004년생)	43만 명	43만 명
중2(2005년생)	39만 명	39만 명
	총 126만 명	총 219만 명

만약 1학년부터 시행된다면, 2019년 기준 고1·중3·중2만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3학년부터 시행된다면, 2019년 기준 고3·중2까지 모두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무상교육을 받는 대상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자사고, 사립 외고, 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다. 특정 학교를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 전국 88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결국 세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학부모의 걱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자원이어서 교육의 질과는 별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등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by 박예리

issue 4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수행평가란 정기적인 시험이 아닌 학교나 선생님이 수업과 관련된 주제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과제로써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대행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반응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교육부는 과제형 수행평가의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 예고 했다. 2016년 학생부 기재 요령을 통해 과제형 평가를 지양 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지침 에서 수행평가 용어의 정의를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으로 수정했다.

즉,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 교육 활동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취지로 중·고교 평가 운영을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였다. 또한,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도 신설되어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이번 2020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 시행되었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교과 수업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버거웠던 과제나 활동을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를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증가하는 수행평가 비중에 맞춰 수행평가에 대한 사교육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예체능 과목과 연결된 수행평가는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하는 사교육까지 생겨난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그것을 막고자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 들어 훈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고, '수행평가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면 평가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시간 내 진행되는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해당 수행평가를 제시한 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수행평가를 교과 수업시간 중 과정 중심 으로 평가하며 획일적인 과제물 제출·단편적 지식 및 결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한다고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을 세웠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수행평가를 교과 수업시간 중 실시하도록 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숙제형 평가를 지양하며 과제형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 성적 처리 방법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원 연수 및 과제형 수행평가 지양 지침 안내, 교과별 평가 계획 점검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으로 수행평가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by 박예리

issue 5

코로나19 : 교육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학교의 모습은 그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지난 5월 17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확실하고, 가을부터 제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고3의 등교를 더는 미룰 수 없어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 보다는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등교를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고3학생들을 시작으로 한 등교 개학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학 입시나 취업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고3을 제외하고, 학교마다 여건에 따라 학년과 학급별로 격주제와 등교, 원격수업을 하루씩 번갈아 하는 '격일제', 오전, 오후반을 운영하는 '2부제'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이 진행되는데는 가운데 진학이 시급한 중3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매일 등교를 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이후 학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등교 시 체온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간의 최대한의 거리(최소1m)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상연락망, 검사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학교의 연계, 그리고 자가격리 범위 확정 등 구체적인 대비하고 준비하며 훈련하는 등 학교에서는 대응 및 방안 수칙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업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늦게 시작하고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등교 수업일이 줄어들어 단기간에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데 따른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대비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 추진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방역 지원과 함께 원격수업 지원까지 예산 활용의 폭을 넓혔다. 방역 지원은 기본 방역용품 구입 뿐만

아니라 추가 방역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원격수업 지원은 교수 학습용 태블릿 PC 구입,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입, 수업 지원용 유료소프트웨어 구입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의 예산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교육청이 강구함에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교육환경들이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 학교의 역할을 더욱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행복감과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의 본령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뤄지는 교감과 정서적인 공유이고 이는 교과 지식 이상의 가치를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이 대면하는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다.

by 이유선

issue 6

건국대, 등록금 환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었고,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의 방식을 검토하는 중에, 건국대학교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 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장학예산만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은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다들 등록금 환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국 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경남에서도 경상대를 시작으로 등록금 환불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상대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10% 정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습권 침해 여부 조사와 보상책 제시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대학본부는 수업 전수조사를 통해 수업을 제공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징계,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등 책임감 있는 조치를 이행하라."로 진행되었고, 투표율 52.543% 중 97.93%가 찬성했다. 학습권 침해 보상책에 대하여 7월 7일 확대 중앙운영 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학사 제도적인 보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과목의 재수강 시 학점 제한 완화' 및 '휴학 횟수 제한 해제'와 금전적인 보상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다.

부산·경남의 사립대 중에는 아직 등록금 환불 대학이 없다. 하지만 경남대학생 71%가 등록금 반환 요구 서명을 진행하는 등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의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by 정현아

issue 7 선택형 패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습권 침해의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시험을 비대면

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행위가 만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택적 패스제의 전면 도입에 관한 의견이 등장했다. 이는 시험 성적이 공지된 후 학생들이 A~D학점으로 표기된 성적을 유지할지, 또는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통과)로만 성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패스'를 선택할 경우 성적 표에는 'P'표시만 남으며 학점 평점에 포함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만 반영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택적 패스제 도입 여부를 두고 학생 측과 대학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논쟁이 일어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택적 패스제 도입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찬성	반대
· 비대면 시험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적 평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 선택적 패스제 도입이 부정행위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원격 강의라는 한정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
	· 성적에 변별력이 떨어짐.

홍익대와 서강대는 각각 지난 6월 5일과 11일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다. 홍익대의 성적평가 방식은 성적정정 기간 내 교과목의 학업성적이 'D0(60점)'이상인 경우 'P(Pass)'로 변경할 수 있다. 'P'로 취득한 교과목은 취득학점에 포함되나, 취득 평점 계산 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서강대의 기말 성적평가는 선택적 패스제의 내용과 사뭇 다르다. 학점 성적(A~D)이 부여된 과목에 한해 원하는 과목을 'S(Successful)'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차이이다.

그러나 비대면 시험에 따른 부정 응시로 인한 공정성 담보라는 취지는 동일하다. 이들에 이어서 서울과기대와 동국대도 각각 6월 18일과 26일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홍익대의 성적평가 방식과 비슷하며 동국대는 최대3과목의 학점을 'P'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장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익대의 경우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학과·학부마다 별도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학과별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의무적인 이수 학점을 달리해서 어떤 과목을 'P'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과별 장학금 수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서강대는 교내장학금과 국가

장학금 모두 선택적 패스제 적용 이후의 성적으로 심사하고, 모든 과목에 선택적 패스제를 적용한 경우 성적이 산출된 마지막 정규 학기의 학점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동국대에서 일부 장학금은 'P' 선택 이후의 최종 성적을 반영하지만 전체 성적을 선택적 패스제로 받을 경우 직전 학기 학점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다른 장학금에는 'P' 선택 이전의 최초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한편 서울과기대의 경우엔 모든 장학금을 선택적 패스제 도입 이전 학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선택적 패스제 도입으로 인해 변경된 장학생 기준이 대학과 장학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몇몇 대학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여러 대학생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부산대에서도 '선택적 S/U'라는 제도 도입에 관해 부산대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S는 패스, U는 논 패스를 뜻하며 D0 이상의 성적에 한해 'S'를 선택할 수 있다. 'S' 표시된 과목은 이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평점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금의 경우 선택적 S/U 이전의 성적으로 산출하여 적용된다. 설문 결과 부산대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86.6%가 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선택적 S/U 제도가 학생에게 좋은 것인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노력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건의했지만, 학교 측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수업의 질적 저하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하는 건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선택적 S/U 도입으로 학습 의욕이 상실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신 학습권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y 박예리

issue 8 사립유치원 챗봇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사립유치원 교육 행정 지원 챗봇'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종합감사 실시

로 체계적인 업무 설명서 안내가 필요함에 따라 비대면 업무지원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전체 사립유치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행정 지원 챗봇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후 채팅을 통해 각종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단순히 몇 번의 클릭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띄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청렴챗봇을 기반으로 사립유치원 교육행정 지원 챗봇을 자체 개발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이용자가 각종 서식 등 관련 자료를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부서(행정 지원과 감사팀, 배치팀, 초등교육지원과 유아팀, 재정지원과 재정 관리팀) 간 유기적인 협업, 협력을 통해 기초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외부 검증을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쉽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공공언어 감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 20대~30대 교사 비율(약 92.6%, 2019년 교육통계 기준)이 높은 점으로 보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행정 지원 챗봇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 업무를 10개 업무로 구분한다. 유치원 학사, 공사, 유아 학비, 교직원 관리, 유치원운영위원회, 적립금/차입금, 유치원 회계, 통학차량, 보수, 유치원 시설로 구분하였다. 둘째, FAQ 방식과 API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는 수요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답변 위주로 구성되었다. 셋째, 감사 결과 및 업무편람 등 기존에 산재해 있던 각종 사립유치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동부교육지원청 박혜자 교육장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 행정지원 챗봇을 활용하면 대면 교육이 없어도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자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디지털 청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by 정현아

ABOUT 임용고시

- 1. 임용고시란?**
- 2. 응시자격**
- 3. 시험절차**
- 4. 시험형태**
- 5.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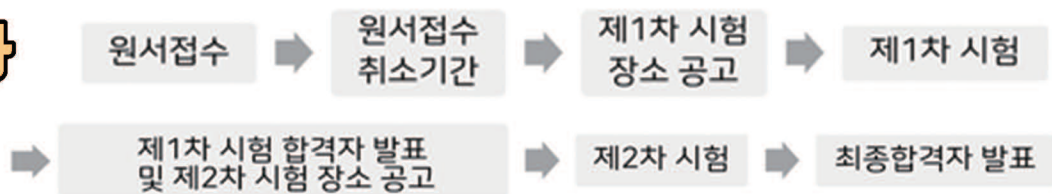
WHAT IS 임용고시?

- 임용고시의 정확한 명칭은 공립(국,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으로,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를 담당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를 담당합니다. 유아, 특수 임용의 경우 2차 시험을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용고시 일정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 공고문을 통해 시험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교원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가 연기 되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2020년 7월 8일 기준)

임용고시 응시자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 따라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에서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 때, 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2급 교원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졸업예정자인 4학년이 되면 문제없이 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절차



시험형태

- 임용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중등 임용 1차에서는 교육학과 전공에 대해, 2차에서는 심층면접,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수업실연, 실기/실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중등임용 1차시험

교시	1교시 : 교육학	2교시 : 전공A	3교시 : 전공B
출제분야	교육학	교과교육학(25~35%), 교과내용학(65%~75%)	
시험 시간	60분 (09:00~10:00)	90분 (10:40~12:10)	90분 (12:50~14:20)
문항 유형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문항수	1문항	4문항	8문항
문항당 배점	20점	2점	4점
교시별 배점	20점	40점	40점

※ 교육학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과락점수 : 해당 배점의 40% 미만

1-2) 유아임용 1차시험(유아 / 초등특수)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분)	비고
교직논술	20	1	60	논술형 (원고지형태 1,200자 내외)
교육과정	80	16문항 내외	A 70분 B 70분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교직논술 : 모집 분야별 교직 및 교양 전 영역
 ※ 교육과정 :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2) 2차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수업실연, 실기/실험)을 평가하며 시험 시간과 자세한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 2020학년도 중등임용시험에서 부산교육청의 경우 교직적성 심층면접 10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수업실연 20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임용고시 T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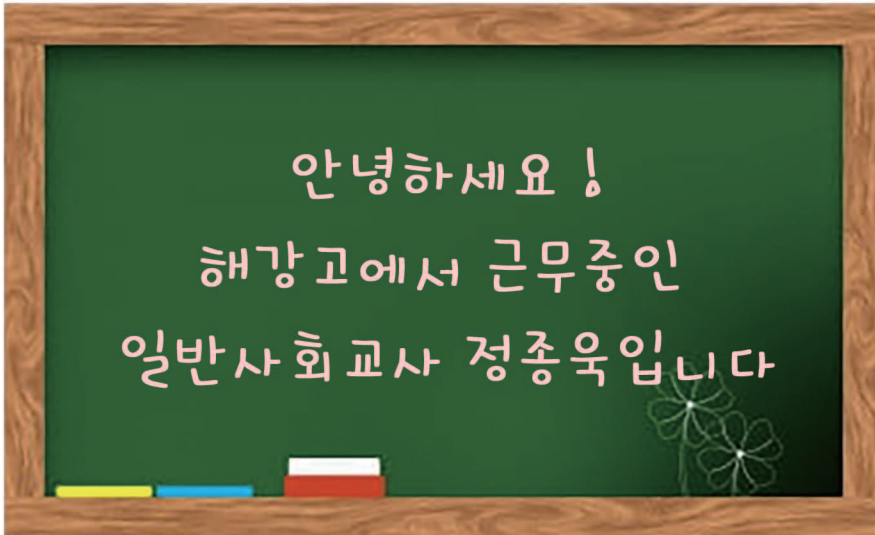
- 기출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기출문제>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용고시는 1990년 10월 국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부터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되었음
- 임용시험에는 OMR이 없다! 서술형과 논술형, 기입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Con-act 교육지원국에서 다양한 임용인강 제휴 및 특강 진행 중

2021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햇불인 여러분을 Con-act가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지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교사 인터뷰

해강고등학교
일반사회교사
정종욱 선생님



Q&A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강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종욱입니다. 저는 2017년도 부산대학교 제31대 사범대학 학생회 참 : Charm 학생회장이었고,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를 2018년 여름에 졸업하였습니다. 임용은 2020학년도 부산시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반사회 교과로 재수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Q.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사범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용에 관심도 없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외활동에 훨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용시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겐 “나는 절대 임용 안 칠 거다! 임용은 내랑 안 맞다!”라고 말하고 다녔었죠 ㅎㅎ 그랬던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즉 내가 속한 ‘일반사회교육과’라는 학과에 좀 더 관심을 쏟고 학과 생활에 몰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과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학과 부학생회장’을 일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임용에 관한 생각이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즈음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남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학생회 선거를 준비했고, 사범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됩니다. 제가 4학년이었던 2017년은 저에게 ‘사범대학 학생회’와 ‘사범대학 학우들’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일 년이 되었습니다. 사범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Q&A

결과 저는 그때부터 슬슬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학년(ㅎㅎ.. 원래 학생회장 하면 기본적으로 한 학기 정도는 더 하는 거 아시죠^^?)으로 올라가는 2018년 3월부터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Q. 교직에 있어서 최대한 지양하려는 태도는 무엇이며, 행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양하려는 태도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태도, 아이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행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항상 깨어있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Q. 선생님만의 소확행이 있을까요?

저만의 소확행은 아무래도 현재 담임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리반 아이들과 함께 웃을 때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판서가 잘 되었을 때랑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해줄 때 행복합니다. 물론 금요일 퇴근길이 제일 확실한 행복이지요 ^_^

Q. 학생과의 상담 시 주로 이상적으로 말씀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는 편인가요?

이상과 현실 둘 다 적절히 조화시켜서 상담하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학생이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알려줘야 하며, 그런 와중에도 희망과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학생에게 심어주는 이상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추천해주고 싶으신 미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임용 공부할 때 주로 봤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은 공부 자극용 영상인데 저는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공부 자극’이라고만 쳐도 매우 많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특히 강추하고 싶은 영상은 ‘공무원 한국사 No.1 전한길 강사의 쓴소리’와 ‘공단기 전효진 선생님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이렇게 두 영상입니다. 정말이지 전한길, 전효진 이 두 분은 ‘동기부여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Q&A

육구가 마구 쏘구치실 겁니다. ㅎㅎ 이 두 분 외에도 사법고시 단기 합격자이신 이윤규 변호사님의 공부법이나 공부 자극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됐고, 사문과 생운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선생님의 영상 역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유튜브의 순기능 아닐까요? ㅎㅎ

Q. 예비 교사들에게 해주고픈 조언 및 덕담

임용시험이란 것은 참으로 잔인한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처럼 일 년에 여러 번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 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시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멘탈은 온전하게 있기 참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재수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멘탈을 붙잡아 준 소중한 존재는 공스타그램, 공부 자극 영상, 힘이 되어주는 노래, 운동과 산책 이 네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심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다음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슬럼프가 왔다는 뜻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저는 본래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던 학생이다 보니 초수 때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도 많이 했었구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충분히 멋진 교사가 될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단지 아직 내게 맞는 타이밍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을 진심 어린 노력으로 충분히 채운다면, 잘 될 거예요. 모두다. 정말로!!!



칼럼

독어교육과 원윤희 교수님
생물교육과 심재호 교수님

사범대인으로서 나를 찾아가는 길

‘데미안처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질을 되짚어 보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독어교육과
원윤희 교수님

**세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Ei ist di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ss eine Welt
zerstören.***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데미안]은 10살 소년 싱클레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따뜻하고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라는 소년은 세상이 자신이 알고 있는 부모님의 품처럼 밝고 따뜻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며, 데미안이라는 선배를 통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선과 악에 대해 고민하며 불안하고 혼란한 청춘기를 보내지만, 고뇌와 방황의 시간을 거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이 소설은 성장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알려 준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이야기하는 위의 문장은 [데미안]에서 인용한 글이다. 누구나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알을 깨뜨려야 한다. 하지만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있었던 것처럼 알을 깨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으면 그 일은 더 쉬워질 것이다. 자아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선생님이 데미안이 될 수도 있다.

사범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초·중등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생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학 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때의 기억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데미안과 같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을까?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올바른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 우리가 잊고 있는 몇 가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교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며,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창시절에 생각나는 선생님에 대해 물어 보면, 자신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감싸준 선생님을 꼽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선생님을 그리워한다.

둘째, 교사 스스로 학생과 함께 성장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은 무조건 수동적으로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발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생의 발전은 교사의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셋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을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교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사범대학에 다니면서 전공과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범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예비 선생님이다. 예비 선생님이로 지내는 동안 스스로 갇혀 있던 알을 깨고 나와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찾기를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변혁적인 역량은 무엇일까?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경험과 처음 시도한 시험방식, 그로 인해 느낀 소감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생물교육과
심재호 교수님

변혁적인 교사의 역량에 대한 논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코로나 19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코로나 19의 환자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일 때를 팬데믹이라 한다. 팬데믹의 예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플루 등이다. 인터넷에 연일 코로나 19의 원인,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더 정확하게는 COVID(Coronavirus Disease) 19이다. 2019년 말에 발생한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 것이다. 2002년에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인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RNA로 된 것과 DNA로 된 것이 있다. 유전자가 RNA로 된 바이러스는 DNA로 된 바이러스에 비해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여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생물체 내에서 복제 증식할 때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발병 첫 달에만 50차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DNA 바이러스에 비해 RNA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변혁적인 역량은 무엇일까?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경험과 처음 시도한 시험방식, 그로 인해 느낀 소감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생물교육과
심재호 교수님

변혁적인 교사의 역량에 대한 논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코로나 19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코로나 19의 환자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일 때를 팬데믹이라 한다. 팬데믹의 예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플루 등이다. 인터넷에 연일 코로나 19의 원인,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더 정확하게는 COVID(Coronavirus Disease) 19이다. 2019년 말에 발생한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 것이다. 2002년에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인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RNA로 된 것과 DNA로 된 것이 있다. 유전자가 RNA로 된 바이러스는 DNA로 된 바이러스에 비해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여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생물체 내에서 복제 증식할 때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발병 첫 달에만 50차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DNA 바이러스에 비해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도 힘들고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도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인간의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유전자와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발생했던 에볼라, 메르스, 사스 등의 백신 개발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예전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특정 지방 또는 지역에 머물렀는데, 에볼라, 메르스, 사스, 현재 전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19까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생물들을 가축화시키고 집단 사육하거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결과 특정 생물종들이 다른 종의 생물과 인간에게 밀접하게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특정 생물에 기생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도 감염되며, 인간 체내에서 정착 가능한 선택적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제, 사회, 정치, 교통 등의 세계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해산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재료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전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의 이동도 하루면 전 세계로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환경 파괴와 집단 사육, 세계화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빠른 확산 즉, 팬데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질병 확산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는 전세계적인 보건 대책의 강화, 경제의 침체, 사회문화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물론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19가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질환이므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선택 상황이었다가 거의 의무 상황으로 변하면서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나 특정 공간에 모이게 되는 상황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학기 개학이 늦어지고 중국에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교육부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물론 온라인 개학을 위해 교육 당국에서는 온라인 개학이 가능하도록 기자재 점검 및 확충, 소프트웨어 파악 및 시범 운영 등이 진행되었다.

우려 속에 전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였고, 몇 가지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었지만 초, 중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은 거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 역량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강의 자료 탑재 후 과제 제출 방식, 동영상 강의 제작 후 탑재 방식, 실시간 동영상 강의 등이 이루어졌다. 초, 중등학교의 경우 강의 자료만 탑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대학의 경우 이를 규제하지 않아 상당수의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 초기에 강의 자료만 탑재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 대학 방침에 처음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상호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고 소모임 토론활동이 쉽지 않으며, 즉각적인 상황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수업의 질도 낮아질 것이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라고 한 이상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은 마이크와 화상용 캠을 준비하고 PPT를 제작한 후 2~3시간 분량의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였다. 여러 번의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 PPT의 글자체 선택, 적절한 표와 그림 정보 수집 및 제작 등이 진행되었다. 한 번의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하루가 소요되었다.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말이다. 온라인 동영상 수업 자료를 올릴 경우 학생들이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게 주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정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동영상 수업 자료를 보고 공부한 뒤 ‘공부한 내용 중 이해한 주요 내용 1~2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 1~2가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 중 스스로 해결한 내용, 수업 자료에서 의문점 1~2가지’를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 준비로 일주일도 금방 지나갔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탑재한 질문 내용, 이해되지 않는 내용 등을 살펴보고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거의 1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오프라인 수업보다 몇 배나 힘들고 수업의 준비, 사후 피드백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한 달이 지날 즈음에 온라인 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온라인 동영상 수업 자료 제작 및 피드백 방식 대신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내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에 자신이 없었다. 혹시 수업 중 무슨 시스템 장애나 조작 능력에서 실수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동영상 제작 수업도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처음 시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방식은 부담이 덜했던 것이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몇 가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 기술을 습득하였다. 예행연습을 하고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해보니 동영상 제작 온라인 수업보다 훨씬 소통이 원활하였다. 미리 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칼럼

없으니 PPT 자료를 만드는 것 외는 사전 수업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다. 피드백도 바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바로 질문을 떠올리거나 질문을 하기에는 질문하는 수업 풍토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질문을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서 병어리가 되고 만다. 이는 학생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답만 추구하는 학교 수업 문화가 크게 작용한다. 정답을 맞추지 못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할 경우 웃음거리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수업을 시작하였지만 동영상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후 학생들에게 ‘공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1~2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 스스로 알게 된 점, 그래도 생기는 의문’에 대해 플랫폼에 탑재하도록 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두 달 후에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모듈별로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모듈별 발표 및 상호 평가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온라인으로 할 경우 컨닝을 방지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들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그래서 시험은 대면으로 하는 방식이 제시되었고, 온라인 시험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모두 화상을 켜놓고 만일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나는 온라인시험을 적용할 때 발생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머리 번쩍 어떤 아이디어가 생성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는 전략과 연계된 아이디어이었다. 지금까지 시험은 학생들이 교수나 책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나 잘 기억한 후 인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나도 이와 같이 단지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시험 방식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면서 기억 능력만 평가하는 시험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인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학생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는 이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방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이번 시험은 온라인으로 봅니다. 책을 봐도 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됩니다. 하지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문제나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고 새롭게 해석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라고 공지한

칼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시험은 나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학생들이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시험지를 보니 다양한 답안들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참평가(authentic assesment)인 것이다. 처음으로 기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뿌듯하였다. 하지만 채점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출제 전에 채점 기준을 만들었지만 채점 과정에서 유사 답안을 계속 보완하면서 기존의 채점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정 보완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

한 학기를 거의 마친 소감은 ‘온라인 수업은 교사나 교수들에게 새로운 변혁적인 교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문장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물론 교사나 교수들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 자료 탑재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까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스펙트럼이 나타났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온라인 수업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한 학기 수업 후의 느낌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여러 번 내 강의를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의 의문에 개별 피드백이 가능하며, 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이 지속되면 투입되는 에너지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갑작스런 온라인 수업 전환에 대한 나의 경험을 예비 교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범대학에서 교육받은 경험으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학교 현장은 이론상으로 대학에서 배웠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교사가 되었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처 능력은 사범대학에서 정해진 교육과정만 따라가면 획득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이 요구된다. 변혁적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제의 발견과 해결 능력, 정보 탐색과 활용 능력, 융합적인 학문과 기능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등이다. 또한 교사가 된 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연수에 참여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 연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범대학 교육소식

1. 소나기학교
2. 사범대학 제휴프로그램
3. 에듀게이션
4. 학이재&이택재/석류라운지

사범대학

ISSUE of ISSUE

소나기학교

소나기학교는 매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진행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7기까지 소나기학교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생 간의 연결을 높였고, 이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논의 결과 제 8기 소나기학교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다시 한 번 사범대학 학우들과 부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소나기 학교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참여”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강의식의 “듣는 수업”이 주가 되었다면, 소나기학교에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습 그 이상”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습 보조의 목적으로 수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과 참여하는 사범대학 재학생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유대감과 공동체라는 개념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 학교의 교사들은 선생님인 동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관련 교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멘토”로서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교생활, 진로,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소나기학교를 통해 교육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역민의 재정적·사회적 자원으로 학교를 다니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부를 제공하여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소나기 학교의 테마는 <Re; 너와 내가 다시>입니다. 무언가를 다시 고민해보거나 만들어보는 등, ‘다시’의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교사기획단을 모집하였으며,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 간 진행합니다.

사범대학 재학생들은 교사 기획단으로서 당해 테마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소나기학교에 참여한 사범대학 재학생들은 교육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범대학에는 4학년 때 실시하는 교생실습 이외에는 교육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더라도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미래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있어, 소나기학교는 실제 교육현장과 유사한 교육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 과정을 직접 설계해보고 운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교사로서 소나기 학교에 참가하여 교사가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진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7회 소나기 학교에 참가한 재학생은, 소나기 학교를 통해 교생실습 이전에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범 대학 재학생들과의 뜻깊은 교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범대학

ISSUE of ISSUE

사범대학 제휴프로그램

사범대학 학생회에서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범대 학생들을 위하여 여러 중등 임용학원과 제휴를 맺어 교육학 및 전공 강좌 할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임용고시를 위한 강의들은 고가이기에, 제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020년 7월 기준 현재는 지스쿨, 해커스 임용, 희소고시 임용특강, 임용닷컴, 박문각임용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진행 일시와 새로운 제휴 사업은 학과 공지 또는 사범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사범대학교 홈페이지(www.pnucoe.com)에서 제휴 프로그램들에 대한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에듀게이션

이제까지의 특강들은 대다수가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학년은 임용 고시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저학년을 주된 대상으로 특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에듀게이션에서는 실제로 임용에 합격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의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합니다.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 특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 위주의 임용특강과는 달리 실제 학교에서의 경험담 위주의 강연과 함께 기본적인 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학기 및 2학기에 한 번씩, 총 두 번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1학기의 에듀게이션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고, 2학기의 에듀게이션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코로나 확산에 따른 변동 가능)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지만 고학년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에듀게이션은 9월 중 신청을 받아 10월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학이재 & 이택재 / 석류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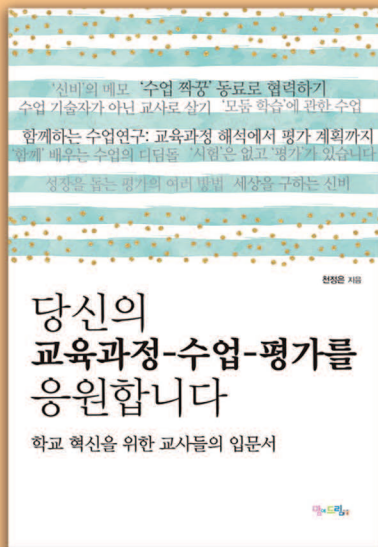
학이재와 이택재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당해 연도 교원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사범관 내에 마련된 공부 공간입니다. 임용고시 지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 석류라운지와는 다르게 사범대학의 3, 4학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학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학기 시작 전 각 학과에서 3, 4학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학에 추천하여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은 각 학과마다 다릅니다. 이택재는 제1사범관 304호에, 학이재는 제2사범관 205호에 위치합니다.

석류라운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이 조별과제, 토의, 공부, 스터디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제1사범관(417) 1층에 위치해있고,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개방되어 있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학이재·이택재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폐쇄하여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9시부터 19시까지 개방합니다. 또한 석류라운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비치되어 있는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나,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FOR 예비교사

추천 도서 / 음악 / 영화

Book



저자: 천정은
출판사: 맘에드림

소개

혁신학교로 지정된 어떤 중학교 사례를 통해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학생참여중심 능동적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해 수업 방법의 변화, 교과협의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하는 글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른 동료 교사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소개

‘교육’이라는 거대한 담론과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도 결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임을 전하는 이 책을 읽으면 ‘김현진’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그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사는 ‘풍경’이 보인다.

전하는 글

이 책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학교 현장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주고 또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보여줌으로써 예비 교사들의 시각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 김현진
출판사: 에듀니티

Music



Jazzy Fact – Always Awake

...

움직이는 시계 바늘이 실감이나
시간에 뒤쳐지거나, 같이 뛰거나,
선택하라면 난 신발을 신을거야
커피 한 잔을 비운 다음에,
심박수를 키운 다음에,
한 숨을 심포처럼 찌고 다시
한밤중에 싸움을 해! 왜?
왜냐면 난 내가 내 꿈의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

윤단판 – 잘 될 거예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놓치죠
괜찮아요 자신을 믿어 봐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론 깊은 맘이 가시가 되어
되려 나를 찔러 와요
또 새로운 약을 찾아 헤메죠
산다는게 때론 그런 거죠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 예요

...



Music



한희정 - 내일

...

셀수록 가슴이 아픈
엄마의 늘어만 가는 주름
조금 늦어도 괜찮단 입맞춤에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또 한참을 울고
다짐을 해보고
어제 건던 나의 흔적들은
푸르른 하늘위로 나의 꿈을 찾아 떠나고
난 고집스런 내일 앞에 약속을 하고...
매일

못다 한 이야기

저는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되었으니깐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갈 때, 마치고 집에 갈 때 들으려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멜론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힘내자'라는 이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들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동안 제게 힘이 되어 주었던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사회교사 정종욱-

Media



소개 클래스/2010.04.01/로랑 칸테

좀처럼 다루기 쉽지 않은 개성 넘치는 아이들과 이성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열혈 4년차 교사 마랭의 수업은 매 시간이 불꽃 튀는 작은 전쟁의 연속이다. 서로 간에 흥미로운 교감과 치열한 갈등이 오가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마랭과 아이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들은 숨겨왔던 진심을 들리게 되는데...

전하는 글 문화적 충돌 등의 이유로 불량학생들조차도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학생지도를 하면 학교 분위기가 바뀌고 아이들과 진심 어린 소통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소개 암살 교실/2015.01.10/키시 세이지

어느 날 일반 진학교인 쿠누기가오카 중학교의 낙오자 반이라고 불리는 3학년 E반에 정체 불명의 생물이 찾아온다. 이 생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쿠누기가오카 중학교 3학년 E반의 담임 선생님이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세계는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전하는 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괴생명체가 어느 학교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과 벌어지는 이야기. 다소 코믹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담겨져있다.



교육이야기

첫번째 이야기, 2020 여름

발 행 일 2020년 7월 27일

발 행 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제34대 학생회
Con-act 교육지원국

주 소 부산대학교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제1사범관 301호 학생회실

전 화 051-510-1610





그대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잇다



사범대학 홈페이지



학생회 카카오톡채널